

# 담양군, 가로수 생활민원 신속 해결

### 담양읍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86본 수형조절 가로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등 효과



담양=박종영기자

담양군은 주택과 상가의 각종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 담양읍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으로 담양교-신남정사거리 구간의 은행나무 86본에 자연수형을 고려한 가지, 도장지 등 수관 가지치기와 고사지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은행나무의 수관이 커짐에 따라 주택, 상가 등 각종 생활민원이 제기되고 응해, 그늘음병이 발생돼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등 수형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목의 생육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수관 밀도를 조절하여 수목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담양군은 앞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로 주변 상가나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조기에 열매를 제거했으며, 내년 초봄에는 담양 문화회관~관방제림 구간의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화순국제백신포럼 성공 개최

### 올해 6회째...화순서 글로벌 백신산업 발전 방향 모색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2022 화순국제백신포럼'(이하 백신포럼)이 세계적인 백신 전문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한 백신'을 주제로 올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백신포럼에서는 세계 백신 연구 성과와 백신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백신산업의 발전 방향, 백신 불평등 극복 방안 등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백신포럼에는 구북규 화순군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준행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장,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자, 의료계, 학계, 기업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백신산업 거점 화순의 위상을 높였다.

세계적인 백신 권위자인 제롬김 국제백신연

구소 사무총장, 라진더 쿠마 수리 개발도상국 백신제조 네트워크 CEO 등 국내외 백신 석학 20여 명이 연사로 참여했다.

화순군은 이번 백신포럼이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국내외에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올해로 6년째 이어온 화순국제백신포럼은 백신산업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 잡았다"며 "백신 불평등 극복을 위한 백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백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바이오산업의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우리 화순이 생물의약품 제2산업단지 조성, 백신특구 확대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확충,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글로벌 백신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 도시재생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운영

###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집수리 역량 강화

구례군은 11월 10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지역주민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집수리 교육 아카데미는 2020년에 선정된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11월 10일 개강식을 시작

로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총 5회로 구성되며, 구례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교육장에 별도의 실습용 가벽을 설치하였고, 신한국&서초토목건축학원 이학노 원장을 초빙하여 도장(페인트)에 대한 실습 위주의 실용성 높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도시재생 집수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금천 야죽마을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 가져

### 기존 민박간담회, '마을좌담회'로 명칭 변경...동절기 운영시간 조정



나주시는 지난 10일 금천면 야죽마을에서 저녁시간대 윤병태 시장과 주민들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를 가졌

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반남면 자미, 노안면 감정, 이창동 정량마을에서 3차례 주민 대화시간을 가졌으나 '민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4번째부터 공식 명칭을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로 변경했다.

기존 오후 8시로 고정됐던 좌담회 시작 시간도 일몰시간이 빨라진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 7시 또는 마을 여건에 맞춰 대화 시간에 융통성을 기

하기로 했다. 야죽마을회관에서 열린 4번째 마을좌담회는 윤병태 시장, 조규권 노인회장, 조종연 이장, 정금순 부녀회장, 김용식 개발위원장, 김선중 전 금천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죽촌리 농로 아스콘 정비', '마을 안길 우천 대비 축구 정비', '벽지노선 버스 증차 및 승강장 정비', '마을100원 택시 혜택 확대', '야죽지석묘군 주변 꽃 식재 및 쉼터조성', '화재 대비 소방차 진입도로 확장' 등 일상과 밀접한 편익·기반시설 개선을 윤 시장에게 요청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곡성군, '하나 둘 셋 넷' 위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곡성군이 지난 9일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골든타임 내에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 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어 마네킹을 활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제로 사용해보며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A씨는 "심폐소생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기회가 있어도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더스트리얼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